

이젠 '국민과반 대표'...트럼프, 전체 유권자 득표도 압도

개표 막바지 6천850만여표 얻어 51.2% 득표율 8년 전에는 선거인단 투표만 이겨 '반쪽 승리' 논란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보한 선거인단만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도 넉넉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 첫 당선이 전체 득표수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이기는 이른바 '반쪽짜리 승리' 논란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완전한 승리에 이른 셈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개표 현황에 따르면 경합주 일부 등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승자가 결정된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천850만4천488표를 얻어 51.2%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얻은 6천348만8천382표(47.2%)와 격차는 3.8%포인트다.

아직 개표가 한창인 주 중에서도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되는 데다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는 만큼 최종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세대로라면 4년 전 대선에서 46.9%의 총득표율에 그쳐 조 바이든 대통령(51.3%)에게 득표율과 선거인단 대결 모두에서 패배한 것을 설욕하게 된다.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2016년 대선에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승리하긴 했지만 전체 유권자 득표율은 45.9%에 그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48.0%)에 밀렸던 '찔끔함'을 털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애초 미국 안팎에서는 박빙의 선거 구도 속에서 8년 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국

민의 일반적 비호감이 작지 않은 까닭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기 위한 경

합주 공략에 골몰할 것이라는 게 현실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뒤집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더 많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이 전체 유권자 득표율로 입증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유권자 득표율과 선거인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8년 전보다 다소 강화된 정통성을 누리며 집권 2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들'을 뽑으면 이들이 별도 투표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확정하는 직접, 간접선거의 혼합 방식으로 치러진다.

그 때문에 전국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 1위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밀려 낙선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외에 2000년에도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48.4%를 득표하고도 선거인단 수가 부족해 47.9%를 얻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824년, 1876년, 1888년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앤디 김, 美뉴저지주서 연방 상원의원 당선

한국계 최초...연방하원 3선 고지 "겸손함 갖고 임하겠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42·민주·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미 동부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게 됐다.

6일 AP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89% 진행된 한국시간 오후 5시(미 동부시간 오전 3시) 기준 김 의원은 53.1%를 득표해 4.4%를 득표한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개표 초기부터 일찌감치 그의 승리를 확정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뒤 미국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직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이 순간을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상 미국인으

로 불린 약 6억명 중 약 2천만명이 이 일을 맡을 영광을 얻었고, 재미교포 역사 120여년 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의원의 상원 진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일찍부터 나왔다. 그는 지난해 9월 뉴저지 출신인 현역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다음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역당 지도부에 "출마 신고"를 먼저 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게 뉴저지주 선거 관례를 깨고 오히려 기



권에 맞서고 이를 혁파하는 전략과 개혁적 정치인 이미지로 승부를 걸었다.

당초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는 당 지도부의 지지를 등에 업었지만 '남편 찬스'에 대한 논란 속에 지지를 정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지난 3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민 2세인 김 의원의 부친 김정환 씨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친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 당선인은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나와 같은 한 소년에게 꿈을 꿀 기회를 준 이 주(州)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공화당, 4년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

최소 51석 확보...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주 2개 의석 추가

미국 공화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의회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자리를 4년 만에 탈환했다.

공화당은 이날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 선거가 진행된 곳 중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주 등에서 승리하며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51석을 확보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2년 전 중간선거 이후 상원은 현재 10

0석 가운데 민주당이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51석(공화당은 4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뀌게 됐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은 임기 2년인 하원 의원과 달리 모든 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지 않고 2년마다 3분의 1씩 뽑

는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선 모두 34명의 의원을 다시 선출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 선거구가 23개, 공화당 현역 의원 선거구가 11개였다.

공화당은 11개 현역 의원 선거구를 모두 수성하거나 수성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그동안 민주당 혹은 친민주당 무소속이 차지하고 있던 오하이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2개 의석을 추가로 보았다.

43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은 아직 양당 중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백악관 탈환에 국제사회 축하 인사

6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을 축하한다"며 "지난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후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진심한 축하"를 전하는 등 유럽 국가 수장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칼 내할머 오스트리아 총리와 페르 피올라 체코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딕 스토프 네덜란드 총리와 울프 크리스토퍼슨 스웨덴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